「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3호(2002 가을) : 67~85

농촌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즘

- 순창군을 중심으로* -

Green Tourism as Rural Resources

- Focusing on Sunchang County -

정 현 욱(원광대 정치행정언론학부)
이 동 기(원광대 지역발전연구소)

여가의 확대와 친환경적인 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농촌의 문화, 역사, 자연, 생태, 구비설화 등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은 공익적 기능과 생산적 기능을 지닌 적극적인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그린투어리즘이나 농촌관광에 대한 연구에서는 농촌자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자원은 오랫동안 농촌 지역에서 형성된 삶과 자연과의 조화, 투쟁 속에서 만들어낸 값진 자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순창군을 대상으로 농촌자원과 더불어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사례분석 결과 순창군은 모범적인 그린투어리즘 추진 지역이며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의 조성,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주로 순창군을 관람 지향적인 관광지로 보고 있어 많은 자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포탈사이트의 구축, 해설가의 양성, 주민 지향적인 사업실시, 교류센터의 운영 등 다양한 정책적인 후원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그린투어리즘, 농촌자원, 정부, 여가확대

Ⅰ. 서 론

사회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자원을 중심으로 한 여가의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자원을 관광 자원화 하여 도시민들이나 방문객들에게 농촌체험활동이나 다양한 여가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즐거움을 주는 것은 농촌의 경제구조에 변화

* 이 논문은 2002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유익한 심사를 통해 논문을 발전시켜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를 가져다주며 농촌생활의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자원을 중요한 관광산업으로 이미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정부는 농촌을 활성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 및 생태의 보전 등의 관광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자원을 개발하고 촉진하여 방문자로 하여금 질 높은 여가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만큼 그린투어리즘은 관광산업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분야이고(Luzar et al., 1998: 54),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여가의 확대로 인하여 도시민들은 복잡한 도시의 구조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여가를 보내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으며(Chen Do Ju & Kerstetter, 1999: 256), 관광지의 선택 내용도 기존의 관광지나 휴양지에서 느끼는 지나친 인공적인 휴양환경과 번잡함을 피해 농촌과 같은 전원 관광지를 선택하여 여가를 즐기거나 자녀를 위한 농촌자원의 체험 및 환경교육 차원에서 이용 행태가 늘고 있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농촌만이 지니고 있는 자원 및 농촌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여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 농 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개발과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성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으로 농촌은 점차로 피폐화 되었고, 농촌의 난개발, 이농현상, 고령화, 지역경제의 침체, 교육기회의 상실 등의 역기능 현상이 발생하여 농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오랜 역사로 풍부한 유산과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자원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농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새로운 가치와 요구가 등장함에 따라 현재의 농촌의 어려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촌의 경관, 문화, 자연 등의 자원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농촌의 경제수입의 안정과 지역사회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농촌관광은 이제 농촌의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하고 지배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Fleischer & Pizam, 1997: 367). 이러한 점은 현재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도 농촌관광은 개인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전체에 경제의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Clarke, et al., 2001: 193; Fleischer & Pizam, 1997: 368).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에 대한 도시인들의 인식전환 및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농촌을 재편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농촌은 이제 생산의 장소이기보다는 소비의 장소로, 놀이와 휴식, 체험의 장소로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으며(문옥표, 2000: 225-226), 농촌 주민들로 하여금 농업행위를 수행하면서 농촌이 지니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고 동시에 도시 주민들과 사회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있다(Fleischer & Pizam, 1997: 371). 이는 환경, 생명,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농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과 다양한 농촌문화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자원이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연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화, 정보화의 혁명 속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있었으며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하여 농촌보다는 도시의 개발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명의 변화와 사고방식 그리고 가치기준에 대한 변화로 인하여 농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중요성이 급격하게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농촌자원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보다는 농촌시설의 개발이나 도로 건설, 편의시설의 확충 등의 거시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었던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자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동시에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문화, 역사, 생태 등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정책목표로 삼고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순창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순창군은 그린투어리즘을 군정의 목표로 정하고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순창군이 지니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러한 점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순창군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대상으로 판단된다.

Ⅱ. 이론적 논의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Clarke, et al., 2001: 193; Oppermann, 1996: 86; Fleischer & Pizam, 1997: 3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는 지적이 드물지 않다(Oppermann, 1996: 87). 이러한 이유 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Oppermann, 1996: 87). 특히, 그린투어리즘이 관광농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이해되는 것이 또 다른 이유가 된다(Oppermann, 1996: 87). 관광농업은 농촌지역에 숙박시설, 편의시설, 안내도로, 체험시설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특정한 공간에 설정하여 방문객들이 휴양할 수 있는 하드웨어 중심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과 농민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적극적인 성격을 담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린투어리즘은 관광농업의 개념과는 달리 농촌이 지니고 있는 역사, 문화, 전통, 설화, 자연 등의 농촌자원을 이용하여 농촌다움에 함께 참여하고 직접 체험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은 관광농업보다 다중적인 여가활동이 가능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농장을 기반으로 한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산악구보, 등산, 어드벤처, 스포츠와 건강 관광, 사냥, 교육체험여행, 자연미술 및 유적지 관광 등 자연과 생태를 중심으로 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ichel, et al., 2000: 451-452).

〈표 1〉 관광농업과 그린투어리즘의 개념

기존의 관광농업	그린투어리즘
획일성	다양성
대자본	소자본
인위적 개발형	자연자원활용형
수동형	능동형
이용자중심형	생산자와 이용자 일체형
농업중심	농업과 타산업의 연계
먹거리 중심	먹거리+교류+체험

이호철. (2000).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개발방안. p.172.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관광농업은 획일성, 대자본, 인위적 개발형, 수동형, 이용자 중심형이나 그린투어리즘은 다양성, 소자본, 생산자와 이용자의 상호 일체형으로 농업과 타산업과의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이호철, 2000: 172).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자원을 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농촌자원의 생산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체험기회의 확대와 여가에 대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린투어리즘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이러한 주장은 그린투어리즘에 연구에 있어 접근방법이나 도구가 상이할지라도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자원의 공익적이면서 서비스 기능을 최대화하여 자연을 파괴하기보다는 생태적이면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지향하면서,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역사, 자원을 근간으로 생태계의 균형과 인간성 회복을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얻을 수 있다(이호철, 2000: 180),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유지와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Turnock, 1999: 192). 이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논리가 생태적, 경제적 기반뿐만 아니라(Kneafsey, 2001: 763) 사회, 문화, 정치적 기반을 근거로 한 인간 중심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하면서 고유한 자원인 문화, 역사, 전통, 놀이, 생태를 보전하면서 도시민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생산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촌진흥전략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1990년대에 시작된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구의 경우도 그린투어리즘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 연구의 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점차로 연구의 양에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예컨대, Fleischer & Pizam, 1997; Turnock, 1999; Kneafsey, 2001; Reichel, et al., 2000; Clarke, et al., 2001; Oppermann, 1996; Chen Do Ju & Kerstetter, 1999; Luzar et al., 1998; 홍성권 외, 2001; 정기환, 2001; 강신겸, 2001, 송미령, 2001, 박대식, 2000; 문옥표, 2000; 이호철, 2000 등). 이들은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접근되고 있다. 첫째,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논의에 대한 시도이다. 최근에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의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는 것으로 농촌지역 주민과 도시의 주민들의 상호 원활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를 둔다는 전제하에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은 출발은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성공을 위한 기반은 주민들과의 공동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은 대규모의 시설 투자를 통해 달성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와 문화의 가치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그린투어리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리즘은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촌과 도시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연구가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슬로바키아(Clarke, et al., 2001), 이스라엘(Fleischer, 1997; Reichel et al., 2000), 일본(Knight, 1996; 문옥표, 2000), 독일(Oppermann, 1996), 대구(이호철, 2000) 등이다.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는 연구자들도 있다(예컨대, Oppermann, 1996; Hjalager, 1996: 문옥표,1998: 93). 이들은 주로 농촌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지역의 전체적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경제의 활성화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의 집단이나 가족단위에서 보조적인 수입을 가져다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Oppermann(1996)은 자신의 연구에서 관광은 농촌의 발전을 위한 만병통치약(panacea)처럼 제시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며 실제로 부수적인 경제수입만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Hjalager(1996)도 재정적인 이득은 농부나 정치가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설령 농촌관광을 통해 경제적인 수입을 확보하여 농촌경제가 활성화된다 할지라도 그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더욱 농촌이 지니고 있는 문화, 전통 등을 상품화와 결부시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문옥표(1998)의 경우도 투자한 만큼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유지나 관리에 대한 부담은 결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의 주장은 실제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그린투어리즘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비해 설득력이 약하다. 긍정적인 측면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농촌자원에 대한 의미나 이해가 부족하였거나 마케팅의 마인드나 기법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고 숙박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노력부족 등(Fleischer & Pizam, 1997: 368)과 더불어 서비스에 대한 질, 가치의 부족(Reichel, et al., 2000: 451), 체험프로그램의 부족이나 전국적인 연계체제 구축의 실패(강신겸, 2001: 11) 등으로 인해 농촌관광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학자들의 견해나 시각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농림부에서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농원관광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고 자연, 생태의 자원을 훼손하거나 시설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경관상 좋지 못한 상태에 있다. 특히 여가의 확대로 인하여 점차로 도시민들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농촌으로 집중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은 농촌개발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할 것이다. 문제는 그린투어리즘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독특한 농촌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차별화 되지 못하고 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에 대한 접근은 바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Turnock, 1999: 192; McBoyle, 1996: 255; 박대식, 2000: 119). 지속가능성은 농촌자원의 보전과 더불어 농촌자원과 인간이 별개의 존재가 아닌 동일한 시각을 전제로 하여 농촌의 생태,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기반에 대한 이해와 도시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의 자연이나 생태, 역사, 문화 등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투어리즘은 방문자들에게 방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매력적인 요인이 되고 오랜 기간 동안 농촌의 자원을 보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Luzar, et al., 1998: 49).

Ⅲ. 농촌자원의 이용잠재력과 실태

1. 농촌자원

그린투어리즘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 문화, 동식물 등의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Luzar, et al., 1998: 48). 여기에 농가에서 전통과 문화가 느껴지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특산품, 음식 등의 그 지역에서만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농촌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체험프로그램을 덧붙여 도시와 농촌이 교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전략이다. 이와 같이 관광과 체험, 여가 활동에 만족을 가져다주기 위한 그린투어리즘의 중요한 접근은 바로 농촌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Kastenholz, et al., 1999: 353; 문옥표, 2000: 207). Elands & Wiersum(2001: 6)는 농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농촌자원을 통해 그린투어리즘을 이해할 수 있고 지속적인 농촌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은 결국 농촌자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Kastenholz et al., 1999: 353).

농촌은 농경을 위한 인간과 자연간의 투쟁이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지역으로서 경지, 취락, 생활양식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보전되어 온 문화, 역사, 생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누적, 표출된 것이 바로 농촌자원이다. 이처럼 농촌자원은 농촌의 핵심적 가치와 관습을 보전하고 있는 이상향으로서 고유한 농촌의 문화, 역사, 지리적 특성, 생태, 생활방식, 경관 등의 그린투어리즘의 원천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자원은 결국 관광욕구의 대상으로 관광행동의 전환과 목적이 될 수 있는 농촌의 모든 것으로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관광동기나 의욕을 충족을 일으키게 하는 자연물로서 유, 무형의 농촌관광대상을 의미한다. 즉 농촌자원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농촌관광에 대한 매력성과 유인성을 가진 것이라 하겠다.

농촌자원은 도시민의 관광패턴이 체재형, 체험형, 가족형으로 변화하고 친환경적인 환경보전형의 패턴으로 변화함에 따라 점차로 농촌관광은 농촌자원을 이용하여 농사체험, 농촌휴양, 농촌문화체험, 특산물판매, 농촌민박 등의 형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강신겸 · 민승규, 2002).

〈표 2〉 농촌자원을 둘러싼 패턴의 변화

	현 재	미 래
도시민의 관광패턴	이동형, 단체중심	체재형,체험형, 가족중심, 교육형
농업방식	다수확, 생산중심	다품종소량생산, 판매중심, 유기농산품생산
환경관점	환경훼손	환경보전, 친환경가치
사업모델	개별농가, 단독마케팅	네트워크구축, 공동마케팅, 체험마케팅
관광상품	하드웨어중심	소프트웨어 중심

자료: 강신겸 · 민승규.(2002). 농촌관광의 가능성과 발전방향. 연구자가 수정보완함.

따라서 농촌자원은 농촌지역에서 있어서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게 하며, 관광객들에게는 위락적, 문화적 가치를 갖게 한다. 농촌자원이 갖추어야 될 조건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농촌자원은 색다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도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과 도시문화에서 벗어나 전혀 색다르고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및 보전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된다. 둘째, 농촌자원은 접근성과 경제성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농촌자원이 방문객들로 하여금 방문욕구를 강력하게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자원으로서 가치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농촌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가치에 대한 결여는 방문객들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겁게, 저렴하게 농촌자원을 이용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농촌자원의 유형은 크게 전통문화와 역사, 생태와 자연, 향토음식과 전통가옥, 경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전통문화 및 역사

농촌의 전통은 농촌생활 속에서 직, 간접적으로 고유한 전통문화를 인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역사문화자원 중의 하나이다. 전통문화는 어떤 집단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 형성된 이후 후대에 전해 내려오는 공통적인 생활양식을 가리킨다(오순환, 2001: 201). 농촌의 역사와 문화는 농촌지역에서 고유하게 존재해왔으며 현재도 여전히 존속하는 무형의 정신 문화적 가치나 전형을 보여주고 농촌의 생활체계와 원리, 사회관계와 공간양식 등에 대한 이해와 상품화에 대한 가능성을 확대해 준다.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의 전통은 우리 생활 속에서의 전통성을 가장 많이 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기도 하다(강동진, 2000: 92).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전설이나 설화, 이야기, 인물, 사건 등을 농촌 마을의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활용하며 또한 이미 맥이 끊겼던 민속예능을 부활시켜 공연예술화 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을 중심으로 생업활동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놀이나 축제 등은 농사일, 농촌자원과 결부되어 왔으며 이들은 오늘날의 축제의 소재를 형성하고 있다.

2) 생태, 자연 자원

농촌이 지니고 있는 자원 중 경쟁력 있는 상품은 바로 농촌 지역이 오랫동안 보전해온 자연자원이다. 산, 강, 시냇가, 동물, 새, 반딧불 등 거의 모든 자연자원을 상품화하거나, 맑은 공기나 자연의 소리, 깨끗한 물, 천연동굴 등도 상품화되는 경우도 있다(문옥표, 1998: 81). 친환경적인 가치의 변화와 자연 지향적인 여가 패턴의 변화는 독특하고 아름답고 자연상태로 보전되어 있는 농촌자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3) 향토음식과 특산품, 전통가옥

농촌의 자연자원, 문화자산과 더불어 농촌이 만들어 내는 특산품은 지역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lark et al., 2001: 196). 농촌관광에 중요한 요인은 농촌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농촌 지역에서 도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체류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전통적인 숙박시설과, 향토음식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객들로 하여금 농촌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고(Fleischer & Pizam, 1997: 367),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문객들은 농촌지역에서 숙박 이외에도 레크레이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찾아다니게 되고 그 지역의 특산품을 구매하게 되기 때문이다(Fleischer & Pizam, 1997: 368). 향토특산물은 오직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거나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박동균, 1999: 144), 상이한 생활습관, 예절, 음식물 등도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이러한 향토음식이나 특산품 그리고 전통가옥 등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신기성이나 향수성을 불러일으키게 하며 동시에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농촌상품으로 연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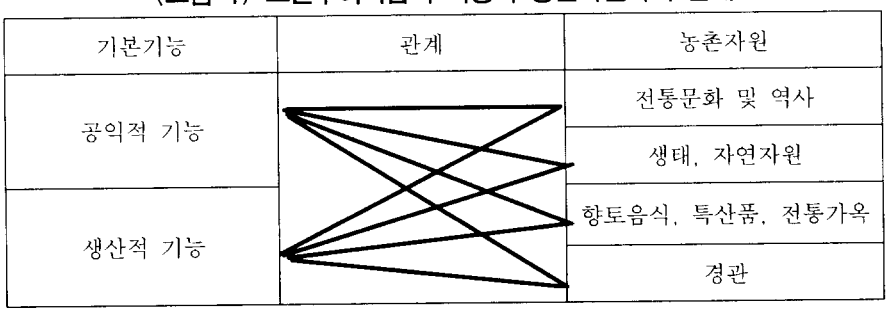
가 가능한 자원이다. 따라서 농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대부분 도시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 직접적인 체험은 장소성(a sense of palce)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4) 경관

농촌은 농업행위의 활동을 위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내지 투쟁을 통해 형성된 지역으로서, 그 속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농작법, 취락, 생활양식, 언어 등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누적되고 표출된 것이 농촌 경관이다. 농촌경관은 야생지 만큼 천연적이지는 않더라도 도시보다는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진 환경보다는 자연적인 경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하다(윤지옥 외, 1995: 94). 농촌경관은 농촌이 오랫동안 형성하고 지켜온 인간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만들어낸 총체적인 산물이다.

그린투어리즘은 이러한 농촌자원을 통해 기본적인 기능인 공익적 기능과 생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농촌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농촌의 경제 활동과 더불어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체험 기회와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농촌자원들은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상호 관계를 형성하면서 보전, 관리, 상품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그린투어리즘이 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농촌자원의 유형을 그린투어리즘이 지니고 있는 기본 기능인 공익적 기능과 생산적 기능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그린투어리즘의 기능과 농촌자원과의 관계



2. 그린투어리즘 성장 잠재력과 농촌자원실태

전북지역의 외래관광객 동향을 보면 1996년에 내국인 17,669명과 외국인 52,714명으로 17,669,058명에서 1999년에는 20,977,433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도 외국인 관광객이 유사이래 500만명을 돌파하여 530만 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전국 인바운드 대비 2%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내관광의 경우도 해마다 증감을 거듭하고 있음은 아직도 전북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소재와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본다(김홍철, 2000: 153).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특히 전북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농경문화가 발달된 농촌지역이 많다는 점에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크다.

〈표 3〉 전북지역의 최근 관광동향

(단위: 명)

연도	내국인	외국인	계
1996	17,616,344	52,714	17,669,058
1997	19,879,827	58,827	19,938,654
1998	18,770,212	46,276	18,816,488
1999	20,884,381	93,052	20,977,433
2000.9	18,576,286	97,430	18,673,626

자료 :전라북도 관광진흥과 내부자료

과거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의 결과 지리적 특성상 도시화나 공업화가 곤란한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산업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불가능한 농촌지역은 자연환경이나 생태보전이 잘 이루어져 여가의 확대와 지나친 도시화로 인하여 농촌의 자연환경이나 생태를 중심으로 한 그린투어리즘과 같은 형태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농촌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순창군 지역과 같이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의 공장시설, 제조업시설의 유치가 어려운 상태에서 지역의 생태,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순창군은 1996년부터 농촌지역인 순창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는 현재는 많은 지방정부에서 그린투어리즘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경험과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순창군은 그린투어리즘을 추진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이미지 만들기이다. 순창군은 전형적인 농촌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농촌경관의 보전, 전통문화가 계승되어 있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순창군은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이미지를 외부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과 전통을 살린 지역 이미지 구축, 다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도시인이 찾아와서 체험하고 체재할 수 있는 여건조성, 도시인이 즐거찾는 분위기 조성, 그린투어리즘 대학설립운영, 계절별 강좌 개설, 학술세미나 토론회 개최, 향토문화 관광자원 개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의 상호 교류 활성화이다. 순창군은 도시민들을 유입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민의 여가를 제공하여 한편으로 순창군이 지니고 있는 특산물, 특산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리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순창군은 잦은 접촉·교류를 통한 친숙관계유지, 주말 농장등을 매개로 가족적 연대의식 함양, 도시와 농촌의 자매결연 추진, 특산물 시장개척을 통한 상호 이익 보장, 지역연고자를 이용한 방문객 증대 방안 강구, 꽃화원 조성과 매년 꽃 축제 개설 등에 대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셋째, 손님맞이 체제 정비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측면도 관심을 가지고 확대하여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측면도 정비하고 새롭게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순창군을 기존의 잘못된 체제를 다시 새롭게 정비하고 민박시설 및 수용시설, 관광지 조성 작업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순창군은 단기적으로는 모델지구 개발 기반조성, 장기적으로는 특정지역 마을 집단화, 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 개발, 농업체험코스 등 프로그램 개발, 체험안내자의 양성과 친절교육, 토속음식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추진경과

- 1996. 05. 04 해외 자매결연 실무조사단 연수
  선진국의 새로운 농촌진흥시책 사례 발굴
- 1996. 09. 06 그린투어리즘 국제 권위자 초청강연
  그린투어리즘을 중심으로한 지역개발
- 1997. 02. 05 실무자 해외선진지 시찰
- 1997. 04. 30 아시아그린투어리즘회 가발족과 사례발표
- 1997. 06. 30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개발 사업구상
- 1997. 11. 30 아시아그린투어리즘 창립총회
- 1998. 02. 06 국제화 연구회 (민간단체) 발족
- 1998. 03. 04 국내전문가 초청 강연
- 1998. 08 .20 제2차 아시아그린투어리즘 총회 (중국 북경)
- 1999. 10. 08 제3차 아시아그린투어리즘 총회 심포지엄 (순창군)
- 1999. 11. 09 한국농촌사회학회에 추진상황발표
- 1999. 12. 30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기본구상 용역완료
- 2000. 03. 21 그린투어 순창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00. 04. 01 서울대학교 공원휴양연구실에서 추진상황시찰
- 2000. 04. 08 한국관광농업학회에 추진상황발표
- 2000. 06. 09 그린투어리즘순창포럼개최
- 2000. 07. 14 제4차 아시아그린투어리즘총회, 국제심포지엄2000참석
- 2000. 11. 11 순창군그린투어리즘육성지원조례제정
- 2000. 12. 14 그린투어리즘 우리말 공모선정
  (아름다운전원농촌만들기 운동)
- 2001. 03. 03 그린투어리즘추진위원회 구성 (자문위원2,위원20)
- 2001. 03. 14 군민토론회 개최 (군청회의실, 150명)
- 2001. 05. 23 그린투어순창 중기계획수립 (2001~2005)
- 2001. 06. 15 순창군그린투어리즘육성지원조례 개정
- 2001. 06. 21 그린투어리즘현장설명회 개최
- 2001. 09. 22 『그린투어리즘시범대상마을육성방향』 연구용역
- 2002. 10. 26 『전국 제1의 장수촌 순창 육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순창군의 그린투어리즘 정책 추진의 결과 짧은 기간동안 관광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에서도 그린투어리즘의 성장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다. 순창군의 관광객 증가추이를 보면 1994년에 217,980명에서 그린투어리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1996을 기점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다가 2001년에는 749,639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표 4>. 이는 순창군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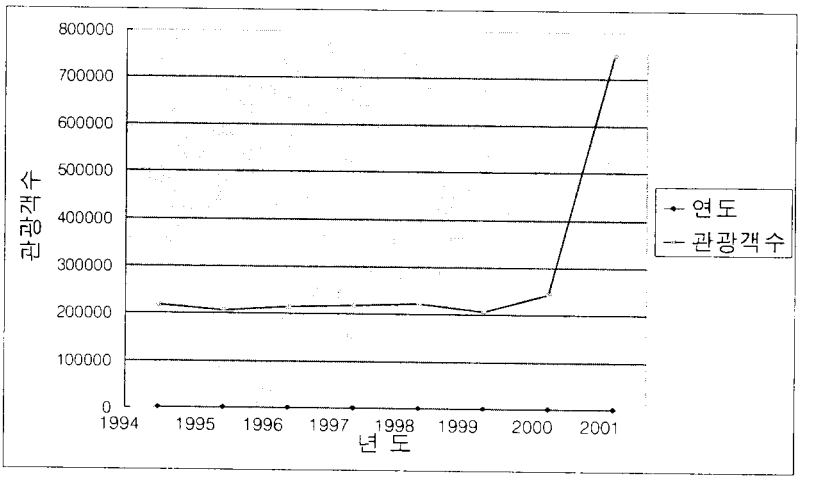
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순창군이 관광지로서 관광객들에게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순창군 지역에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는 여가의 확대와 친생태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 전북 지역에서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고 풍부한 자원이 있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적인 근접성이 뛰어나 단일 체재형 가족동반 관광객들에게 매력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 4〉 관광객 증가 추이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관광객수	217,980	206,412	215,246	218,383	222,738	206,385	244,143	749,639

자료: 순창군 내부자료.

〈그림 2〉 순창군 관광객 추이



또한 순창군이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관광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것은 순창군 지역에 유, 무형의 문화적 자원이 산재해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표 5참조). 즉 순창군은 보물(3), 중요민속자료(3), 유형문화재(9), 민속자료(2), 문화재자료(2), 기념물(4), 무형문화재(1) 등이 순창군 전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풍수지리에서 호남 8대 명당 중에서 순창에서 3개의 명당이 있어 자연적이고 지리적으로 순창군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전통적으로 전승되어온 기우제, 당산제, 기자행위 등이 있어 순창군의 다양한 자원 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문화행사, 순창전통고추장을 통해 순창군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순창군은 역사적으로 삼한시대부터 전통적인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 그러한 증거들이 여러 곳에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오랜 역사로 인물과 역사적 사건, 유적지, 유형 및 무형 문화재가 많은 순창군은 농촌자원을 그린투어리즘에 적용할 경우 다양하고 개성 있는 휴양지 또는 관광지로 조성이 가능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관광의 특성이 항상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계층과 참여에 있어서 구별이 되는 자극원을 추구하고 있어 단순한 구경거리는 더 이상 관광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자원으로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높다.

현대의 관광수요가 다양한 형태의 개성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순창군처럼 농촌자원이 풍부하고 자연상태가 잘 보전되어 있는 곳은 지역의 농촌자원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재창출하고 재조합하는 작업을 통해 그린투어리즘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표 5〉 순창군 문화관광자원

자원유형	주요자원	비고
문화재	남원양씨 종중문서,설씨부인권섭문첩, 월인석보, 충신리석장승, 남계리석장승, 성황대신사적현판, 순화리3층석탑, 삼인대, 순창객사, 신경준의고지도,강천사5층석탑, 라주임씨절도공파종중유품, 신말주선생의십로계첩, 남원양시중종문서, 순평사금,동여래조상, 산동리남근석, 창덕리남근석, 귀래정, 순창향교대성전, 홀어머니산성, 낙덕정, 귀암정, 어은정, 고려적제학양수생처열부이씨려, 영광정, 설진영서, 판소리	보물(3),중요민속자료(3),유형문화재(9), 민속자료(2),문화재자료(9),기념물(4), 무형문화재(1)
문화행사	봄가을야생화꽃축제, 군민의 날행사, 화문산해원제, 청소년한마당, 삼인문화제, 추령장승축제	
명당터	회문산오선위기혈, 인계마명당, 복흥대방황앵탁목혈, 복흥하리사두혈,쌍치보평득수국	
기우제	백산기우제, 용암기우제, 돌고개기우제	
당산제	자포리줄다리기당산제, 덕흥리줄다리기당산제, 동산리당산제, 어은리당산제, 동서리솟대당산제, 대각리솟대당산제, 석보리장승솟대당산제, 추령당산제	
기자행위	귀미기자샘, 내령기자바위, 산동리남근석	
판소리	장판개명창, 장자백명창, 박유전명창, 김세종명창	
돌독놀이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	
옥천줄다리기	순창읍	

자료: 순창군 홈페이지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그러나 소규모의 농촌지역이지만 오랜 농경문화의 역사로 인하여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투어리즘의 개발에 반영된 것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농촌자원이 순창군의 그린투어리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순창군의 주요 관광지별 연간 방문객의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6참조). 비록 <표 6>은 순창군의 관광지 전체에 대한 통계는 아니지만 순창군 관광지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 곳이라는 점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즉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강천산 군립공원과 회문산 자연휴양림에 방문한 전체 관광객 833천명 가운데 강천산 군립공원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인 782천명이 방문하였고 회문산 자연휴양림에 불과 5만명 정도만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 지역은 다양한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천산 공원에 방문객이 집중된 것은 자원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관광활동이 주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단순한 감상 및 관람형태를 띠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6〉 순창군 주요 관광지 관광객 현황

(단위: 명)

구분	총 방문객수	강천산군립공원	회문산자연휴양림
총방문객수	833,004	782,586	50,418
1999년도	206,358	189,820	16,565
1/4분기	17,936	16,251	1,685
2/4분기	52,513	47,129	5,384
3/4분기	82,044	75,287	6,757
4/4분기	53,892	51,153	2,739
2000년도	205,242	187,094	18,148
1/4분기	16,791	15,454	1,337
2/4분기	41,280	36,702	4,578
3/4분기	69,535	61,545	7,990
4/4분기	77,636	73,393	4,243
2001년도	421,377	405,672	15,705
1/4분기	22,757	21,310	1,447
2/4분기	68,136	63,091	5,045
3/4분기	175,175	169,015	6,160
4/4분기	155,309	152,256	3,053

자료: 순창군 내부자료

다. 따라서 순창군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표적인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의 실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순창군 지역은 생태 및 자연 자원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방문객들에 연상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다양한 농촌자원의 활용이 그린투어리즘의 운영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그린투어리즘 시범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그것이다(표 7참조). 순창군은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의 정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구림면 안정리 일대와 적성면 석산리 강경마을을 대상으로 시범마을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구림면 안정리의 경우 휴양지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 지역은 회문사 자연휴양림이 인접해 있고 고추장의 전통이 발생한 지역에 인접해 있어 적합지로서 선택되었다. 적성면 석산리 강경마을의 경우는 농가소득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자원과 농촌의 경관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마을을 통해 도시민들을 유입시키고 산재되어 있는 농촌자원인 문화, 자연, 환경, 농업 등을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여 체험 방문객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7〉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개발 계획

지 역	선정배경	주요도입활동	개발초점
구림면 안정리	회문사 자연휴양림이 인접해 있으며 고추장의 유래지인 만일사가 위치에 있음	고추장, 대나무, 꿀 등 지역특산품의 개발, 브랜드 개발, 역사교육장, 산책로 조성	휴양지
적성면 석산리 강경마을	전형적인 농촌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음	현 상태의 보전, 느티나무, 폐가옥, 대마무숲, 소마무숲, 바위 등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배경을 통해 글쓰기 장소, 숙박시설정비, 휴식공간으로 도시민들에게 제공	농가소득

자료: 순창군. (2001). 그린투어리즘 시범대상마을 육성방향.

안정리 마을의 발전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마을테마의 개발이다. 관광객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마을 테마, 이미지 및 특성화 브랜드를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테마컨셉은 고추장, 대나무, 한봉의 통합 이미지를 조합해 대통꿀 고추장의 컨셉을 개발하였다. 이는 궁중진상 고추장의 유래와 더불어 무학대사와 만일사의 관련성, 빨치산 도내 사령부, 영화 남부군 등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상품화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8〉 마을 테마 컨셉

기회요소	통합이미지	전략
만일사	대통꿀 고추장	-마을브랜드화
고추장		
한 봉		
대나무		
산 채	건강한 향토음식	-대통꿀 고추장과 연계시킨 그린투어 프로그램의 개발 -제어/관리에 필요한 센터 조성 -주요경관 정비 및 지원시설정비
두 릅		
차나무		
전통주		
풍 수	이야기로 둘러보는 마을	
역사가 있는 지명		
빨치산		
남부군 영화		
한 지	색다른 체험학습	
숯가마		
짚신공예		
하 천	때묻지 않은 자연	
계 곡		
송 림		

자료: 순창군. (2001). 그린투어리즘 시범대상마을 육성방향.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둘째, 마을 생산품 개발 및 유통개선 사업이다. 기존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한봉, 산채, 고로쇠 등을 상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고추장 담그기, 짚 공예, 한지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사업으로는 단기사업에는 작목반 활성화, 품질제고를 위한 기술교육, 포장재 개선, 농로개선, 저장고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하고 중장기 사업으로는 그린투어와 연관된 상품생산, 시장 자원의 복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그린투어 마을별 특성화 작업을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안정리에는 크게 안심마을, 산내마을, 죽림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안심마을의 특성화는 공예, 역사 교육 테마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 방문객 센터와 회문산, 만일사와 회문산을 연결하는 결절점으로서의 기능강화, 마을회관을 정비, 마을입구의 마을숲조성, 계곡의 보전 및 회문산 접근로의 관리,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산내마을은 고추장 담그기 등의 체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을 가꾸어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추장 생산체험공간의 정비, 먹거리의 개발, 주변 경관식수, 인지성의 확보, 마을회관의 주변정비, 접근성의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죽림마을의 경우 죽림산책 등의 휴양테마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접근로 도로정비, 향토마을 체험 기회제공, 빈집을 이용한 마을센터 조성, 대나마숲을 이용한 휴양효과증대, 의병공원에 방문객 유도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강경마을의 경우는 농가소득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네 가지의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첫째는 글쓰기 마을이라는 테마를 통해 마을의 이미지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강경마을이 지니고 있는 한적하고, 포근하고, 여유롭고, 깨끗하고 정취가 남아있는 마을에 가장 어울리는 테마는 글쓰기 마을의 테마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사업은 단기사업의 경우 순창군내 문인들과 연계방안의 마련, 홈페이지 개발을 추진하며 중장기사업은 문학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문학인을 위한 이벤트 유치를 실시한다. 둘째는 글쓰기 위한 체계 조성사업이다. 글쓰기에 편안하고 편리한 여건의 조성은 필요하다. 따라서 마을내의 공간조성, 외부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셋째는 마을 생산품 개발 및 유통개선이다. 단기소득사업으로 대나무 분재 작목반을 구축하고 민박 작목반을 구성한다. 또한 환경농법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방문자들에게 판매한다. 넷째는 외부인의 마을 정착 유도 사업이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소멸될 위기에 있는 마을에 외부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젊은 귀농인을 유치하여 글쓰기 센터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학인 정착 마을로 유도한다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다.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그린투어리즘은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서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 특히 농촌이 지니고 있는 자연, 생태, 문화, 구비설화, 시설, 경관 등의 농촌자원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순창군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과 농촌자원에 대한 의미를 탐색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현대 관광의 특성이 관광객의 관광경험에 있어서 점차 개성화와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번잡한 구조와 체제에서 벗어나 자연 지향적인 관광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농촌자원이 그린투어리즘에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관광활동이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커다란 부가가치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농촌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리즘은 관광소비 활동을 증대시켜 농촌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오랜 농경문화를 지니고 있는 순창군의 경우는 다양하고 독특한 자원이 있어 훌륭한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순창군의 방문객의 증가율이 최근에 비교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범마을 조성 사업과 더불어 산재해 있는 농촌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순창군의 그린투어리즘의 정책적인 추진과 발굴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순창군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방향과 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린투어리즘의 지속적인 개발과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농촌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Kneafsey, 2001: 763),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유병규, 2000: 54). 여가시간의 확대와 환경의 가치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린투어리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다움을 보전하면서 주민 스스로 기회를 발굴하여 사업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은 물론 정부, 여행자, 연구자, 기업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그린투어리즘의 목표를 공유하고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강신겸, 2001: 20). 이를 위해서는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운영주체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운영주체의 선정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행정지원을 해주고 기업이나 민간단체들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협력적인 네트워크 관계의 형성을 이루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그린투어리즘의 운영 및 계획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린투어리즘의 가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순창군의 그린투어리즘의 지속적인 유지와 성공을 위해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가적 재능, 비즈니스, 마케팅 개념 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실천적인 행동이 요구된다(Clarke et al., 2001: 200). 순창군은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부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 순창군을 이미지화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순창군은 그린투어리즘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방문객이나 잠재적인 관광객들로 하여금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의미를 이해시키고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홍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관련학회의 세미나, 발표회, 그리고 녹색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거나 크고 작은 이벤트 행사를 지역주민 자체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독특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고유 브랜드화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안내체계를 개발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족 단위 관광객, 자가용 이용 관광객 등 개발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고 있어 이들에게 정확하고 방문할 욕구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체계의 개선은 필요하다.

또한 순창군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녹색마을 해설자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린투어리즘은 새로운 여가문화의 변화로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그린투어리즘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화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획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녹색마을에 대한 역사, 문화, 설화, 자연 등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재미있고 실감나게 연출할 수 있는 해설가 양성의 문제도 심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단순한 관람 지향적인 방문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 지향적인 방문으로 전환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설가이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유산해설가라는 명칭아래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문화유적지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상은 그 중요성을 확인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설자는 가급적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오랫동안 농촌자원에 익숙해져 있는 주민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객들은 현지 해설가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고 해설가는 자신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자연자원의 보전, 관리 등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의 역할이다. 순창군의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주체와 동시에 후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어 이끌어나간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부는 주체가 아니라 순창군의 지역주민들에게 그린투어리즘의 사업을 지원하고 때로는 후원자로서의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컨대, 마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키고 시범마을을 육성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의 프로그램이나 마을이 개발되면 그린투어리즘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상품화하고 소개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활성화를 통해 정부는 지역의 지명관련, 설화, 문화자원, 역사자원, 전설 등 에 대한 흥미 있고 재미있는 스토리 개발을 통해 하드웨어적 관광자원과 시설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파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 단위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방문객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농가, 마을, 지역 등을 포함하는 그린투어리즘 포탈사이트를 구축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농교류센타의 추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농촌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리즘의 내용을 순창군 지역을 중심으로 탐색적인 시도를 하였다. 순창군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순창군의 그린투어리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제기된 주장과 내용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연구의 질과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동진. (2000). 일본 전통마을의 유지, 관리방법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28(4): 91-104.

강신겸. (2001). 여가시간확대와 농촌관광의 가능성.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3-20. 전국농업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술자협회 · 삼성경제연구소.
강신겸 · 민승규. (2002). 「농촌관광의 가능성과 발전방향」. 삼성경제연구소.
김홍철. (2000). 전북지역 테마관광 인식도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 151- 169.
문옥표. (2000). 그린투어리즘의 생산과 소비-日本群馬縣片品村의 總合交流 터미널 事例를 中心으로-. 「농촌사회」, 10: 205-232.
박대식. (2000). 바람직한 농촌개발의 방향-Sustainable Development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0: 105-127.
박동균. (1999). 경북북부권의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한세정책」, 6(1): 141-163.
송미령. (2001). 농촌마을 관광모델과 주민참여방안.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23-40.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삼성경제연구소.
오순환. (2001). 한국의 전통축제와 놀이형태에 관한 고찰. 「한국관광학회」, 25(2): 197-215.
이호철. (2000).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 개발방안-대구시의 약초 시민 농원 개발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0: 167-203.
유병규. (2000). 도시근교농업의 복합산업화와 공간활용. 「농촌사회」, 10: 37-70.
윤진옥 · 김유일 · 정기호. (1995). 도시 및 농촌거주자의 농촌경관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2): 93-103.
정기환. (2001).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24(2): 139-162.
홍성권 · 김성일 · 이태희. (2001). 컨조인트 선택모델을 통한 녹색관광 선택행동 연구. 「관광학연구」, 25(1): 215-231.
Chen Do-Ju & Kerstetter, Deborah C. (1999). International Studies' Image of Rural Pennsylvania as a Travel Destin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 256- 266.
Clarke, Jackie., Denman, Richard., Hickman, Gordon., & Slovak, Julius. (2001). Rural Tourism in Roznava OKres: a Slovak Case Study. *Tourism Management*. 22: 193-202.
Elands, Birgit. H. M. & Wiersum, Freerk. K. (2001). Forestry and Rural Development in Europe : an Exploration of Socio-Political Discourses. *Forest Policy and Economics*, 3: 5-16.
Fleischer, Aliza & Pizam, Abraham. (1997). Rural tourism in Israel. *Tourism Management*, 18(6): 367-372.
Kastenhaz, Elisabeth., Davis, Duane., & Paul Gordon. (1999). Segmenting Tourism in Rural Areas: The Case of North and Central Portugal.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 353-363.
Kneafsey, Moya. (2001). Rural Cultural Economy-Tourism and Social Rela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3): 762-783.
Knight, John. (1996). Competing Hospitalities in Japanese Rur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1): 165-180.
Luzar E, Jane., Diagne, Assane., Ec Gan, Christopher., & Henning, Brenda, R. (1998). Profiling the Nature-Based Tourist: A Multinomial Logit Approach.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 48-55.
McBoyle, Geoff. (1996). Green Tourism and Scottish Distilleries. *Tourism Management*. 17(4): 255-263.
Oppermann, Martin. (1996). Rural Tourism in Southern Germany.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1): 86-102.
Reichel, Arie., Lowengart, Oded., & Milman, Ady. (2000). Rural Tourism in Israel: Service Quality and Orientation. *Tourism Management*. 21: 451-45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Turnock, David. (1999). Sustainable Rural Tourism in the Romamian Carpathians. *The Geographical Journal*. 165(2): 192-199.

Hjalager, A. M.. (1996). Agricultural Diversification into Tourism: evidence of a European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me. *Tourism Management*, 17(2): 103-111.

鄭鉉旭 : 1993년 University of Akron에서 사회학박사학위 취득. 논문제목은 "성인대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현재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로 재직. 한국사회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탈관료제적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조선족 귀화여성들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분야는 사회심리, 조직행동 등이다. <E-mail:jungyun@wonkwang.ac.kr>

李同基 :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정부혁신의 확산에서 모방 및 지식효과)를 받고 학술진흥재단 Post-Doc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원광대 지역발전연구소에 재직하고 있으며 원광대, 호원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지역축제, 문화산업, 문화마케팅, 문화관광정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이 지역축제의 만족과 재방문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2000)", "혁신확산의 영향요인(2000)", "지역축제의 서비스질 구성요인이 방문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2000)" 등이 있다. <E-mail: inno386@dreamwiz.com>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